

251224 WSJ 요약_PERPLEXITY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report, I have analyzed the "Th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4, 2025)" file you provided. I have screened the articles based on your criteria (macro flow, US market cycles, Fed policy, AI trends, market sentiment) and selected the 3 most critical articles that offer direct insights for your "Buy Low, Sell High" strategy.

Here is the deep analysis report.

2025년 12월 24일자 WSJ 주요 기사 심층 분석 보고서

결론 요약

미국 경제의 '불안한 호황'과 금리 인하의 딜레마 (Stagflationary Boom Risk):

2025년 3분기 미국 GDP는 4.3%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으나, 그 이면에는 2.9%로 반등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준(Fed)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은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불투명하게 만들며, 이는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주식 시장에 잠재적인 '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호황과 달리 물가 압력이 지속되는 '고압 경제' 상태입니다.

소비 건전성의 붕괴와 신용 버블 징후 (Credit Cycle Warning):

자동차 대출 시장에서 100개월(8년 이상) 할부 상품이 등장하고, 신차 가격이 2020년 대비 33% 폭등한 점은 소비 여력의 한계를 시사합니다. 소비자들이 월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상환 기간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현상은 전형적인 '부채 사이클의 막바지(Late Cycle)' 징후입니다. 현재의 강력한 소비 지표(GDP)는 빛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향후 경기 침체 시 '가계 부채 발(發) 폭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 투자자의 극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장 탐욕의 정점과 자산 가격의 동조화 (Asset Inflation & Debasement):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시에, 안전 자산인 금(Gold) 역시 \$4,482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주식)과 안전 자산(금)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실물 경기 호황보다는 '화폐 가치 하락(Debasement)'과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버블의 정점(Peak)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탐욕 지수'가 극에 달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폭락을 대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기사 1

1) 제목

English: Consumers Fuel Surge in Growth (Delayed report shows third-quarter GDP increased at highest clip in two years)

Korean: 소비가 주도한 성장 급증 (지연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GDP는 2년 만에 최고 속도로 증가)

2) 핵심 요약 3줄

-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4.3%를 기록, 예상치(3.2%)를 크게 상회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함.
- 이러한 성장은 의료, 서비스 등 소비 지출 강세에 기인했으나, AI 관련 지출은 2분기 대비 다소 둔화됨.
-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2.9%로 상승하여 연준(Fed)의 2% 목표를 상회, 금리 정책 셈법이 복잡해짐.

3) 기사 행간 분석 및 투자 시사점 (매수/매도 타이밍)

[Cycle Analysis: 버블의 정점 부근 (Late Expansion)]

이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미국 경제'라는 호재로 읽히지만, 행간에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치명적인 리스

크가 숨어 있습니다.

- **매도 타이밍 시그널 (Yellow Light):** GDP가 4.3% 성장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2.9%로 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는 점은,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주식 시장은 '골디락스(고성장+저물가)'를 반영하여 사상 최고가(S&P 500)를 달성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고성장+고물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구간으로**, 역사적으로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 **AI 투자 관점:** 기사에서 "AI 관련 지출이 2분기보다 식었다(cool)"고 언급한 점은 빅테크 주도의 랠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QQQM 등 기술주 ETF의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화하여 다음 폭락장을 대비할 시점입니다.

4) 기사 전문 번역

미국 소비자들의 강력한 지출이 3분기 경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장시키며,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무부는 화요일, 7월부터 9월까지의 국내총생산(GDP, 경제 전반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이 계절 조정 및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율로 4.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두 달 가까이 지역 발표되었으며, 셧다운 이전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 한 해 동안 미국 경제가 어떻게 호황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을 제공합니다. 성장률은 전 분기의 3.8%에서 가속화되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3.2%를 쉽게 따돌렸습니다.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강력한 확장세입니다.

소비 지출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병원 및 요양원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등 외래 환자 서비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해외 여행, 법률 서비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PC)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에 대한 지출 또한 기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출도** 도움이 되었으나, 그 성장 속도는 2분기에 비해 다소 식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기업 투자 성장률은 전 분기 7.3%에서 3분기 2.8%로 둔화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Federal Reserve)의 목표치인 2%보다 높게 유지되고, 고용이 부진하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암울한 전반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상무부는 3분기 수치를 수정할 예정이며, 2025년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경제 성장 평가를 내년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클레이즈(Barclays)의 경제학자 조나단 밀러는 "모든 것이 3분기 수치가 시사하는 것만큼 좋기만 한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경제는 평균 연율 2.5%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을 늘리면서 발생한 1분기의 일시적 위축 이후의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4년에 기록된 평균 2.4%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아침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관세(TARIFFS)가 위대한 미국 경제 수치의 원동력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대법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1977년 법에 의해 승인된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보고서는 지난 분기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함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상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2분기 2.6%에서 3분기 연율 2.9%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3분기 연율 3.5%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정부, 재고, 국제 무역 데이터를 제외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를 추적하는 지표는 3분기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의 기저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몇 가지 약세 징후도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과 공장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기업 지출은 감소했습니다. 주거용 투자는 2분기 연율 5.1% 감소했습니다.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내구재에 대한 소비자 지출은 1.6% 증가하여 전 분기 2.3% 성장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RSM의 수석 경제학자 조 브루수엘라스는 "이는 사람들이 낡은 재고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이 주로 고소득 가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서비스 지출은 3.7% 증가하여 전 분기 2.6%, 1분기 0.8%에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GDP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처분 개인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인플

레이션을 간신히 따라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세후 기준이며, 주로 투자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지탱해 온 자본 이득(Capital Gains)은 제외됩니다.

경제학자들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AI 주식이 포트폴리오를 부양함에 따라 인공지능 지출을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바클레이즈는 AI 관련 투자가 3분기 GDP 성장에 약 0.4%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상반기의 약 1%포인트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무역은 수출이 급증하고 수입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3분기 헤드 라인 GDP 수치를 1.5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기사 2

1) 제목

English: Soaring Car Payments Spur 100-Month Loans (Buyers Seek 100-Month Car Loans)

Korean: 치솟는 자동차 할부금에 '100개월 대출' 급증 (구매자들, 8년 넘는 장기 할부 찾아)

2) 핵심 요약 3줄

- 미국 신차 가격이 2020년 이후 33% 급등하며 평균 5만 달러를 돌파, 평균 월 납입금이 760달러에 달함.
- 높은 가격과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출 기간을 84개월, 96개월, 심지어 100개월까지 늘리고 있음.
- 미국 자동차 대출 총액이 1.66조 달러(약 2,200조 원)에 달해 가계 부채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3) 기사 행간 분석 및 투자 시사점 (매수/매도 타이밍)

[Cycle Analysis: 신용 사이클의 붕괴 전조 (Credit Bubble Bursting Signal)]

이 기사는 미국 소비 경제의 약한 고리(Weak Link)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 폭락의 전조 (Red Flag):** 자동차는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감가상각 자산을 100개월(8년) 할부로 산다는 것은 소비자가 현재의 소득으로 자산을 구매할 능력이 없음을 방증합니다.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 시장에서 나타난 '무리한 레버리지'와 유사합니다. 차값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빛을 갚는 속도가 느려지면(Negative Equity), 소비자는 파산하고 금융권(Auto ABS)은 부실화됩니다.
- 투자 전략:** 이는 경기 침체가 올 경우 가장 먼저 터질 뇌관입니다. 소비재 섹터와 자동차 관련 주식의 매도를 고려해야 하며, 시장 전체적으로 '탐욕 지수'가 높을 때(현재)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추후 이 버블이 터져 시장이 공포에 질리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신용 경색 발생 시), 우량주를 줍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4) 기사 전문 번역

미국의 신차 및 트럭 가격이 2020년 이후 33%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대출 기간을 8년, 9년, 심지어 거의 10년까지 늘리면서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서쪽 27마일 지점인 펜실베이니아주 글렌 밀스에서 닷지(Dodge) 및 지프(Jeep) 대리점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켈러허는 요즘 많은 미국 가정들이 신차 할부금을 편안하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차에서 월 300달러 납입금은 더 이상 없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블루 북(Kelley Blue Book)에 따르면 올가을 신차 평균 가격은 **5만 달러** 벽을 깨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강타하기 전인 2020년 초의 3만 8천 달러 미만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스티커 가격(표시 가격)이 치솟으면서 월 납입금도 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자동차 구매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공급망 붕괴로 딜러 주차장이 비어 있던 코로나 시기에 구매를 미뤘던 많은 이들이 새 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현금이 두둑해져 훨씬 더 비싼 럭셔리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11월로 넘어가 보면, 산업 조사 업체 J.D. Power에 따르면 신차 평균 월 납입금은 **760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막대한 누적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이제 일부 미국인들은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금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너무 힘겨워 전형적인 48~60개월 자동차 대출 기간은 72개월 이상의 장기 대출에 자리를 내주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Experian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에 전체 구매자의 3분의 1이 최소 6년, 즉 72개월에 걸친 대출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는 구매자의 29%가 그랬습니다. 85개월에서 96개월, 즉 최대 8년까지 상환하는 대출 규모도 10월까지 자동차 구매자의 1.61%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대출은 이제 **100개월**, 즉 8년 이상에 걸쳐, 특히 대형 픽업트럭 구매 시 더욱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스티커 가격 3만 달러 미만의 모델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진정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상장 딜러십 체인인 Sonic Automotive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히스 버드는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에게 구매자들이 더 나은 선택지를 갖게 될 때까지 감당 능력(Affordability)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드는 "솔직히 말해 이것은 정말 우려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긴 자동차 대출 기간에 대한 의존은 미국인들이 더 많은 부채를 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3분기에 미국인들은 5년 전보다 3,000억 달러 증가한 **1조 6,600억 달러**의 자동차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반 필수품 가격이 고공 행진하고 높은 금리가 가계 예산을 압박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신차가 더 저렴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규제 당국에 현재 정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초소형, 그리고 더 저렴한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한 길을 열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기회에 달려들 것이라는 징후가 있습니다. 포드(Ford)는 이번 달 고객들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더 저렴한 기본 패키지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엔트리 레벨 픽업트럭인 매버릭(Maverick)의 판매는 11월에 76% 급증했습니다.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지프(Jeep)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판매가 급감했으나, 많은 차량의 가격을 수천 달러 인하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고객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지프 브랜드 CEO 밥 브로더도프에 따르면 현재 지프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스티커 가격 5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가장 최근 분기에 판매를 11%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가격 상승, 모든 것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업계 임원들은 기술 및 엔지니어링의 발전 덕분에 차량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더 긴 대출 기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Chase Auto의 소매 및 소비자 부문 책임자 마이클 더글라스는 "지금 다른 점은 스티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큰 이자 지불액을 발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더글라스에 따르면 고객들은 자동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으며, 올해 평균 신규 대출액은 4만 2,000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출 기간을 결정할 때, 구매 시점의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총 소유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5만 달러 자동차 대출을 5년 동안 5% 금리로 받으면 월 약 950달러, 총이자 6,600달러를 내게 됩니다. 100개월로 하면 월 납입금은 약 600달러로 떨어지지만, 차주는 1만 1,000달러 이상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텍사스의 62세 자산 관리 고문 스티브 레비는 최근 넓은 토요타 픽업트럭을 교체하기 위해 시장에 나갔고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잠재 이자율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대출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레비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자동차 대출은 기껏해야 48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처럼 길게 (대출 기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실로 충격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3

1) 제목

English: GDP Lifts S&P 500 to a Record (Markets: Stock Spotlight)

Korean: GDP 호조에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시장: 주식 스포트라이트)

2) 핵심 요약 3줄

-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3.2%)을 넘는 4.3%를 기록하자 안도감에 S&P 500이 0.5%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2. 동시에 안전 자산인 금(Gold) 가격도 온스당 \$4,482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주식과 원자재가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임.
3. 투자자들은 경제가 둔화되지 않고 성장한다는 점에 환호했지만, 국채 10년물 금리는 4.1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3) 기사 행간 분석 및 투자 시사점 (매수/매도 타이밍)

[Cycle Analysis: 탐욕의 극치와 화폐 가치 하락 (Peak Greed & Currency Debasement)]

이 기사는 현재 시장이 '모든 자산의 버블(Everything Bubble)'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매도 타이밍 시그널 (Flash Red):** 경제 교과서적으로 주식(위험 자산)과 금(안전 자산)은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둘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폭락(Debasement)**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 **투자 전략:** 시장에 '공포'는 없고 '탐욕(GDP 호조 환호)'만 가득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탐욕 지수가 높을 때 조용히 매도"**해야 할 정확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주식이 동반 폭등한 직후에는 연준의 긴축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Deleveraging)이 뒤따랐습니다. SPLG, QQQM의 분할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채권(TLT 등)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피신할 때입니다.

4) 기사 전문 번역

미국 경제가 3분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온 후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New High)**를 기록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발표된 GDP 보고서에 따르면 9월까지 3개월 동안 경제는 연율 4.3% 성장하여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성장률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3.2%를 상당히 상회했습니다.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소비자 지출의 회복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는 부진한 노동 시장이 미국 소비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주식은 장 초반 트레이더들이 더 강력한 성장이 금리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평가하면서 흔들렸으나, 이후 견고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S&P 500은 0.5% 상승하여 12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0.2%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Nasdaq Composite)**는 0.6% 상승했습니다.

코메리카 웰스 매니지먼트(Comerica Wealth Management)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에릭 틸은 "강력한 성장과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식에 좋은 레시피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틸은 "경제가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더 인하할 경우 장기 채권 수익률을 더 높게 밀어 올리고 달러를 약화시킬 위험이 증가합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화요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월가는 내년에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는 새로운 연준 의장을 널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달러 헛지 수단인 **금(Gold)**과 같은 자산에 몰려들었습니다. 금 가격은 화요일 트로이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섰고, 또 다른 사상 최고치인 4,482.80달러 바로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귀금속 가격은 2025년에만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정보 기술 섹터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으며, AI의 총아인 **엔비디아(Nvidia)**와 **브로드컴(Broadcom)**이 각각 3%, 2.3%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의 알약 버전에 대해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확보한 후, 이 회사의 미국 예탁 증권(ADR)은 7% 급등했습니다. 모더나(Moderna)는 12월에 백신 제조사의 주가를 30% 이상 끌어올렸던 상승세 이후 7.5% 하락하며 S&P 500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톡스 유럽 600(Stoxx Europe 6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최근 저점에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62.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